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란 국가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전통공예나 예능의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형체가 있는 미술품, 고고유물, 역사적 건축물을 국보로 지정하는 나라는 많지만, 전통음악, 예능, 공예 등 무형의 기술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나라는 일본이 최초입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은 국가의 문화와 역사에 있어 유형문화재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며, 글로벌화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획일화되는 일 없이 반드시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1950년에 일본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률은 중요무형문화재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정의한 법률이었습니다. 1954년 개정에서 이 정의에 적합한 예술 및 공예품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때의 개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기술이나 공예를 습득한 개인 또는 단체를 ‘보유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기술 보존과 진흥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이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통칭 ‘인간문화재’라고 불립니다.

중요무형문화재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선정은 문부과학성에서 주관합니다. 문부과학성에 속해 있는 기관인 문화심의회는 문화재 연구와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문부과학대신의 자문을 받아 후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부과학대신이 최종적으로 인정을 결정합니다.

현재까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누적 약 수백 명 정도입니다. 이 인정은 평생 유지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보유자 수는 상한이 11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유자에게는 매년 조성금 200만엔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과의 균형을 고려해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유자 수는 이보다 적습니다. 조성금은 후계자 양성, 공연 및 전시회 개최, 기록 영화 제작 등에도 사용됩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공예기술’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9개 분야로 분류됩니다. 도예, 염직, 칠공예, 금속공예, 목죽공예, 인형 제작, 손뜨기 화지(일본 전통 종이), 염색한 상아에 문양을 새기는 ‘발루(撥鏤)’, 작게 자른 금박을 붙여 문양을 그리는 ‘기리카네(截金)’입니다. 또한 도예에서는 사이유, 칠공예에서는 마키에처럼 각 분야별 특정 기법으로 세분화됩니다.

공예기술의 많은 분야에서 이시카와현은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시카와현에는 10명의 개인과 1개의 단체가 공예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현 인구 대비 보유자 수로 환산했을
경우 전국 1위에 해당합니다.